

제목: 예수 다윗의 자손 **The Son of David**

본문: 누가복음 **18:31-43** 절

31.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Then He took the twelve aside and said to them, "Behold,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and all things which are written through the prophets about the Son of Man will be accomplished.**

32.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For He will be handed over to the Gentiles, and will be mocked and mistreated and spit upon,**

33.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and after they have scourged Him, they will kill Him; and the third day He will rise again."**

34.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But the disciples understood none of these things, and the meaning of this statement was hidden from them, and they did not comprehend the things that were said.**

35.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 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As Jesus was approaching Jericho, a blind man was sitting by the road begging.**

36. 무리의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대 **Now hearing a crowd going by, he began to inquire what this was.**

37.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They told him that Jesus of Nazareth was passing by**

38.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And he called out, saying,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39. 앞서 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Those who led the way were sternly telling him to be quiet; but he kept crying out all the mor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40.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And Jesus stopped and commanded that he be brought to Him; and when he came near, He questioned him**

41.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And he said, "Lord, I want to regain my sight!"**

42.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And Jesus said to him, "Receive your sight;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43.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Immediately he regained his sight and began following Him, glorifying God; and when all the people saw it, they gave praise to God**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31** 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 내용은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일**이었습니다(**31** 절 “선지자들로 기록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마태복음 27:31** 절) 침 뱉음을 받겠으며(**마가복음 15:19** 절)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며(**마태복음 27:26** 절) 삼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가복음 16:6** 절). 그러나 제자들은 한 명도 알아 듣지 못했습니다(**34** 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증거했습니다(**사도행전 2:14, 23** 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알게 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시작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바로 메시야 즉 그리스도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소경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치료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에 **한 소경은** 길 가에서 구걸을 하며 육신적인 생명을 위해서 하루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육신적인 구걸에서 영적인 구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한 소경을 소개하는 내용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소경은 육신적인 것을 구걸할 때는 길 가에 앉아 구걸했다고 소개하고 있지 소리를 지르며 간절하게 구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간절하게 구원을 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38** 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느 정도 간절하게 구했는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할 정도로 간절하게 구했습니다(**39** 절).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구원에 관하여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야 즉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서기관들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도 성령의 받기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은 **영적인 눈이 있어** 예수님을 메시야로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소경을 불러 오게 했습니다(**40** 절). 그리고 가까이 온 소경에서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경의 대답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 상태를 해결한 상태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육적인 것을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즉 **영적인 것으로 불러서 확인하고 난 후에 육적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소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1** 절에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육적인 해결 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42 절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적으로 볼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인가요? 바로 믿음입니다. “네 믿음이”라는 이 말이 영적 구원과 생활의 축복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서 성도들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메시야 즉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31 절 “선지자들로 기록된”)

1.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 (1) **요한복음 5:39** 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2.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 (1) **요한복음 7:42** 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하며”
3.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 (1) **요한복음 13:35** 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둘째, 영적인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38 절 “다윗의 자손”)

1.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 (1) **마가복음 8:35-37** 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2.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 (1) **누가복음 18:18-22** 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거를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 네가 한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죽으라”
3.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령으로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 (1) **요한복음 8:51** 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 (2) **요한복음 15:10** 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셋째, 필요한 것을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39 절 “더욱 심히 소리질러”)

1.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간절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1) 고린도후서 8:7 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찌니라”

2.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1) 빌립보서 4:6 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3. 능력있는 기도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1) 사도행전 4:31 절 “기도를 간절히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